

학교부터 먼저 찾으신 사연

2014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시였다.

이날 조감도앞에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된 위성소학교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너무나 꿈만 같은 영광에 목이 메여 고마움의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학교일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질 학교의 래일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며 학교구내를 둘러보시였다.

이윽고 천천히 현관계단으로 오르시던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일군들에게 위성소학교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인것만큼 과학자후비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자자녀들이 과학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가는 부모들처럼 어엿한 과학인재들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새 살림집에 앞서 학교를 먼저 찾으시였던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것이 혁명인데 과학연구사업도 대를 이어가면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르치심도 남기시였다.

제일 먼저 찾으신 학교,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육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절감할수 있다.